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 혼자만’으로 상징되었던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던’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어딘가 속하게 되고 또 누군가의 일원이 되는 것만큼 든든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해서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화평과 충성등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달점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남기신 공동체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가정은 한순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이며, 애쓰고 힘써 자라가는 것이며, 결단하고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작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온누리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함께 누리고 전수하며 사랑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과 비전 나눔 ..... 다함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의 비전을 집안 어른들과 함께 나눕니다”  
마 침 ..... 《주기도문》 ..... 다함께



보통으로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 고 하나님 아버지 모 션으 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 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 고  
 3. 아침 과 저녁에 수고하 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가

믿음 의 반석도 든든하 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 라  
 기쁨 과 설움도 같이하 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라  
 한상 에 둘러서 떡고마 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라

후렴

고마워 라 임마누 엘 에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라 임마누 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 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한 올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자유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언제나 있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며 믿음, 소망, 사랑이 되어 주심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랑 넘치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20-22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히말라야 산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한 평생 기도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다 눈을 떠보니 자기 앞에 어느 수도원 원장이 었드려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자네는 어떻게 여기 왔나?”라고 물었더니, 원장은 “제가 원장으로 있는 수도원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훈련받았는데 지금은 수도원이 텅텅 비었습니다. 찾아오는 젊은이도 없고 찬양소리도 그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도원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수도원의 수도사 중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신들이 그를 알아볼 수 있어야 부흥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도원 원장은 돌아가 다른 수도사들에게 우리들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수도사들은 자기들 가운데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사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다른 수도사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일까? 저분일까? 이분이 하나님일까? 저분이 하나님일까? 그러는 동안 말도 조심하게 되고, 믿음을 다시 추스르게 되고,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수도사들은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수도원은 감사 찬송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수도원은 다시 젊은이들로 복거되었습니다. 썰렁했던 수도원이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수도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중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